

상록탑

# 연애 못하는 대학생, 연애 '안하는' 대학생

대학을 다니면서 '남자친구가 있냐'는 질문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인사치레처럼 나의 연애사를 물어왔다. n년 동안 '없다'는 답을 하는 것도 민망한 일이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되물었다. "왜 없어요?"



양한주  
편집국장

흔히 요즘의 20대를 '3포 세대'라고 부른다. 취업, 육아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다. 그 세 가지에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함해 '5포 세대'라는 말도 생겨났다. 3포 세대든 5포 세대든, 이런 말을 만들어낸 기성세대의 눈에는 우리가 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로 보이는 모양이다.

이 때문인지, 그 기성세대가 써낸 자기계발서에는 요즘 '연애'에 대한 목차가 하나 추가됐다. 20대의 젊은 시절에 뜨겁게 연애하고,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 아예 연애 잘 하는 방법에 대한 책도 꾸준히 나온다. 좋은 남자를 찾는 방법,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방법 등 자칭 연애 고수들이 청년들에게 전하는 일명 '여우짓 TIP'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러한 시선들이 어딘가 불편하다. '반드시 연애를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강요, 마치 '아프니까' 청춘이었던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남자친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쓰는 시간에 나를 위해 조금 더 투자하고 싶었다. 누구 말마따나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대에, 스스로가 행복한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다.

필자는 연애를 하는 대신 해보고 싶은 일에 몰두했다. 데이트 대신 여행을 했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러 전국 지방공국을 돌아다녔다. '여대'라는 연애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활동을 하는 대신, 미래와 진로에 더 도움이 되는 활동을 했다.

그러다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눈살을 찌푸렸던 '여우짓 TIP'을 이용해먹을 날도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 나도 기성세대 언저리에 갔을 때에는 그 창창한 시절에 연애를 안한 것이 후회가 되는 날도 올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의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나름대로의 삶을 산다.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한다. 뜨거운 연애를 하는 것도, 독신으로 사는 것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일 뿐이다. 그러나 '3포 세대', '5포 세대', 심지어는 '7포 세대'에 담긴, '연애 안하는 젊은이'를 향한 그 동정 어린 시선은 조금 거두어줄지 바란다. 현재의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20대를 '무언가 포기하고 사는 사람'으로만 보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 연애도 강요받는 20대, 동정 아닌 이해 필요해 ”

“ 것처럼 '사랑해야' 청춘이라는 것만 같다. 방법론까지 내세우며 '연애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들이 이렇게 많다니, 신기하기까지 하다. 다들 이렇게 우리 세대의 연애사에 관심이 많았구나 싶다가도, 이 좁되니 묘한 반항심도 든다. 충고를 가장한 강요에 뼈뚫한 시선으로 묻고 싶어진다. “왜 연애를 꼭 해야 돼요?”

“ 'N포 세대'들이 아마 다 그렇겠지만 필자 역시 바빴고, 돈도 별로 없었고, 취업 준비에 온갖 스펙에 내 할 일 챙기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남자친구가 없는 것은 비단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그냥 좋은

학생 칼럼

# 보고 싶던 마음

채플 날짜나 보러다 여기까지 온 당신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바쁜 당신과 어렵게 만났으니 당신 얘기를 해볼까 한다. 스무 해를 갓 넘긴 생을 살아내고 있을 당신은 여름의 한창 때에 방학을 맞이했다. 무더위도 함께 맞이했다. 높이 치솟은 온도라는 구실을 스스로 내세우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괴로웠을 것이다. 해가 쳐도 내리쬐는 볏을 욕하며 해야만 하는 일들을 묵묵히 해낼 수도 있다. 도망치고 싶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남들 다 하는 일하기에 진저리 치며 했다. 도리질지며 못 본 체도 해봤다. 똑바로 갔든 모로 가다 주저앉았든 마음은 괴로움으로만 가득했다. 여기가 아닌 어딘가로 내빼고만 싶었다.



조은혜  
광고홍보11

“ 괴로움 끝에 피어날 찬란한 무지개를 기다리며 ”

이 흑어 단어와 단어의 조합으로만 들리지 않을까. 고작 그것들로 당신의 괴로움을 한 가닥이라도 때낼 수 있을까. 무엇보다 당신 생애 관한 오지랖을 퍼 되려 진장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생의 한창 때를 함께 견디고 있다지만 당신에게 달라붙은 괴로움을 썬하진 못하기에 망설인다. 당신에겐 당신만 느낄 수 있는 괴로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타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오롯이 혼자만 알 수 있는 그런 괴로움 말이다.

얼마간의 어두움을 지낸 당신이 괴로움을 털어내려한다. 평소 하루를 버터내는 힘보다 더 큰 힘을 쓴다. 괴로움과 사투하는 당신의 고단함이 먹먹함을 부른다. 힘내라

는 알량한 말은 하고 싶지 않다. 불공평한 것만이 공평한 게 세상이라는 혹독한 진실도, 다 잘될 거라는 거짓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태산인데 할 수 있는 것은 티끌이다. 결국, 풀려버린 당신의 손에 주저하는 손을 가만 얹을 뿐이다. 주저함의 온기가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의 반지반이라도 전할 수 있길 바랄 뿐이다. 무섭게 내리는 억수에 조금이라도 덜 젖길 바랄 뿐이다. 조금이라도 덜 앓길 바랄 뿐이다.

허 끝을 돌던 별 별 바람이 닿은결까. 당신이 끝내 괴로움을 떨쳤다. 그 모습에 미안함이 앞선다. 당신에겐 우주보다 무거웠을 괴로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일까 싶어 간이 달았다. 그 조바심의 무게를 핑계로 당신의 짐은 조금도 덜어지지 못했다. 사랑한다면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그 시간에 마음 한 자리 내어 주지 못했다. 그래서 더 자랑스러운 당신이다. 괴로움의 시간들을 홀로 견뎌낸 것도 모자라 그렇게나 예쁘게 자라주지 않았는가.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있지 않은가.

이제야 빛나는 당신을 대했건만 이제는 당신을 보낼 시간이다. 술한 괴로움의 순간을 잘 가누고 이 자리에 와 주어서 고맙다. 아프리만치 차가운 비를 맞고도 몸살 감기 정도만 앓아줘서 고맙다. 이번엔 글렀다 생각한 당신 생이 실은 누군가에겐 사랑이고 기대라는 것을 알아주어 고맙다. 비가 그쳐간다. 당신의 무지개는 아직 뜨지 않았다.

사설

# 역사 왜곡, 그들의 코가 길어진다

피노키오는 목수 제페토가 만든 나무 인간으로, 거짓말을 하면 코가 자란다. 처음엔 단순히 학교에 가기 싫어 시작한 피노키오의 거짓말은 점점 커지고, 아버지 제페토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피노키오 또한 인형 극단에 끌려가거나, 바다 상어 뱃속에 갇혀 죽을 고비를 넘긴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피노키오 자신의 '거짓말'이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논란을 보면 피노키오가 떠오른다. 각계 전문가들은 광복 70주년인 올해가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역사 부정, 거짓말로 양국 관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일본 내 역사 부정은 교과서 왜곡으로 한 뼘 자라났다. 어린이들의 역사 인식을 교육으로 경직시키려는 의도다. 일본 정부가 승인한 사회 교과서 중 일부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독도가 다케시마, 즉 일본 영토로 표기돼있기도 하다. 또한, 아베 총리는 과거 침략, 식민지배 역사가 담긴 자학사관적 교과서를 폐기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군 중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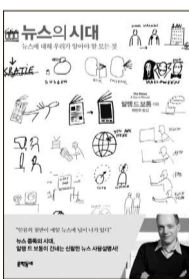
어린 사과를 거부하는 일본의 코는 또한 뻣 자라났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강제 동원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수요 집회가 계속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26일 본지는 본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일본인 후루타 사호씨를 만났다. 그는 소논문 주제로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제를 택했다. 그는 역사를 제대로 알고 싶어 한국에 온 만큼, 주저 없이, 역사를 소논문 주제로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역사 서술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역사 문제 해결 첫 단추로 소통과 교류를 제시한다.

아베 총리가 동화 피노키오를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피노키오처럼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 말이다. 피노키오는 아버지의 제페토의 도움으로 거짓말을 멈추고 선한 인간이 된다. 만약, 아베 총리가 거짓말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를, 일본을 도울 사람은 없다. 울해만 위안부 할머니 8명이 돌아가셨다. 일본 정부의 사과 한 마디 못 듣고 떠났다.



금주의 책



**뉴스의 시대** 알랭 드 보통 지음, 서울: 문학동네, 2014. 신문과 TV를 넘어 소셜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뉴스는 우리 생활 깊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알랭 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는 이 질문에 대해 다룬 책입니다. 정치, 해외, 경제, 셀레브리티, 재난, 소비자 정보 뉴스를 선별하여, 각 뉴스가 보여주는 현재와 앞으로 나아갈 언론의 역할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대중이 올바른 뉴스 활용법을 찾아 좀더 건강하고 현명하게 뉴스를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합니다. 이화인 여러분이 '참' 뉴스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길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대 도서관 좋은 책 추천위원회-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 인기도서], [3층 일반자료실 302.23 D352n한]

여론광장

# '통학러' 위한 통학버스 필요해

개강. 또 다른 학기가 시작된다. 많은 이들은 새로운 학기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설레기보다 '또 지긋지긋한 통학의 시작이다'라는 마음뿐이다. 용인에서 서울까지. 돌고 돌아 왕복 3~4시간에 이르는 대중교통을 타고 통학하는 것은 정말 진저리가 나는 일이다.

모든 '통학러'들의 고충은 비슷할 것이다. 출퇴근 시간과 겹치기라도 하면 공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이나 버스에 몸을 실어야 하는 상황이 짜증스럽기만 하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기도 전에 녹초가 되어버리니

수업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이제는 대중교통 요금이 올라 한달에 10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교통비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모르는 이들은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은 어떠냐고 이야기하지만, 집 근처에 분당선이 있는 용인은 기숙사 신청 자격이 없다. 또한 신촌 지역의 방값이 워낙 높은 까닭에 자취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내가 학교에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은 통학버스 운영이다. 현재

서울대, 고려대 등은 통학생회 차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눈뜨면도착'이라는 통학버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목마른 이들이 우물을 파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노선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학교의 지원이 일체 없기에 재정적인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동덕여대는 학교 차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1회 이용요금 500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500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당장은 학교의 수많은 인員들을 수용할 주거 공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통학버스 운영은 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일이다. 김혜린(국문14)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대하역사만화	박시백	휴머니스트	2005-2013
2	(KBS) 한국어능력시험	한국방송공사, 한국여연구회, 한국방송공사, 한국어진흥원	넥서스: 형설출판사	2006-
3	신과 함께: 신화편	주호민	애니북스	2012
4	신과 함께: 저승편	주호민	애니북스	2011
5	버림 받은 황비: 정유나 장편소설	정유나	D&C books: 디앤씨미디어	2013-2015
6	로마인 이야기	염야철생	한길사: 한길사	1995-2007
7	(建國君主) 강희대제: 二月河 大河歷史小說	이월하	산수야	2005
8	아리랑: 趙廷來 大河小說 제2판	조정래	해냄	2004
9	드래곤 라자: 이영도 장편소설	이영도	황금가지	1998
10	(Hackers) 해커스 토익 실전 1000제: reading 2	한국방송공사, 한국여연구회	해커스어학연구소	2011
11	모방범: 미야베 미유키 장편소설	공부미유기	문학동네	2006
12	1Q84: 무라카미 하루키 장편소설	춘상춘수	문학동네	2009-2010
13	食客	허영만	김영사	2003-
14	정글만리: 조정래 장편소설	조정래	해냄출판사	2013
15	토지: 박경리 대하소설	박경리	나남	2002